



# 변화와 불확실성 속 역지유지

---

한미일 전략대화회의 보고서

Brad Glosserman

## ISSUES & INSIGHTS

회의 보고서

CR-1 19 호 | 2019 년 1 월

하와이, 마우이

## **퍼시픽 포럼(Pacific Forum)**

퍼시픽 포럼([www.pacforum.org](http://www.pacforum.org))은 호놀룰루를 기반으로 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해 연구하는 외교 정책 연구소입니다. 1975 년에 설립된 이래 태평양 지역의 광범위한 연구소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아시아의 관점을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글로벌 리더, 정부 및 대중을 상대로 프로젝트 결과 및 정책 제언을 제공합니다. 퍼시픽 포럼의 프로그램은 정치적, 안보, 경제 및 해양 정책 관련 현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심층적인 연구·분석·대화를 통해 역내 협력을 촉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 목 차

감사의 글.....	iv
회의 주요 결과.....	v
회의 보고서.....	1

## 첨부

첨부 A .....	A-1
첨부 B .....	B-1
첨부 C .....	C-1

## 감사의 글

이 출판물은 미국 공군, 공군사관학교의 후원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협약 번호 FA 7000-18-1-0003 에 의거, 미국 공군사관학교 및 퍼시픽 포럼이 후원하는 연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미국 정부는 저작권 표시에 관계없이 정부 목적을 용도로 동 보고서를 복제 및 배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의견 · 결과 · 견해 · 결론 또는 권고 사항은 저자의 것이며,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미국 공군 또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배포 정책 A. 배포 제한 없음.

# 주요 결과 및 정책 제언

## 마우이 한미일 전략 대화

---

퍼시픽 포럼은 미국 국방부 국방위협감소국 (DTRA: 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과 미국 공군사관학교 PACSS (Project on Advanced Systems and Concepts on Counter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지원을 받아 47 여 명의 한미일 전문가들과 퍼시픽 포럼 영리더(Young Leaders) 5 명을 초청해, 2018년 8월 6일~ 8일간 대북관계 변화, 핵 확장억지 및 한미일 안보협력 등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고, 북핵 협상과 관련한 2 단계 모의훈련/위게임 (TTX)이 실시되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회의들에 비해 이번 회의 참가자들은 한반도 핵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성이 높았고 격의 없이 토의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1.5트랙 대화가 한·미·일 3국 정부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합니다.

참가자들은 각기 다른 관점을 솔직하게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양측은

그간 한일 양자 및 한미일 삼자 협력에 장애물이었던 양국간 과거사 문제를 부각하거나, 미국의 관심을 사기 위한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한미일 3국은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3국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같이 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위기 발생시 한일 양국은 우선 미국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한국팀은 역내 강대국 사이에서 겪는 안보 위협에 대해 토로하며, 일부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 혹은 심지어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본팀은 일본 방위력에 한계와 이에 따른 대미 의존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미국팀이 동맹국들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주시했지만, 미국팀이 뚜렷한 의지를 밝혔을 때조차 이를 오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는, 북한이 전략적으로 비핵화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김정은이 한국과 미측과의 협상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한미일 동맹

체제에 균열을 초래해 결국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 마련을 위해 최대한 시간을 끌고자 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미국의 정책 선언에도 불구하고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은 2018 년 정상회담 이전에 절정에 이르렀고, 이제는 완전히 복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에 폭넓은 합의가 있었습니다.

한일 양국의 참가자들은 미국의 일방적 한미 연합훈련 중단 결정에 대해 수 차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군 방위 태세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동결정이 동맹국간 상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측의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에 특별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본 참가자들은 동북아를 하나의 전구(戰區)로 보고 자국의 안보가 한반도 상황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미국에게 한미 동맹을 약화 혹은 주한미군을 철수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한일 양팀은 한미 및 한일간 동맹이 아직은 굳건한 상태지만, 미국과

동맹국들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대북 문제 뿐 아니라 통상적 동맹간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 동맹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의 변화 역시 동맹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각 국의 입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한국은 신중히 긍정적인 (믿되 검증하라)입장이며 미국은 신중히 회의적 (믿지않지만 검증하라), 일본은 회의적 (믿지 않음)인 것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예측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양국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어떻게 발현될 지, 동정책이 동맹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불안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참가자들이 트럼프이 특이 (unique)하기는 하지만 미국 정책에는 변화보다는 지속성이 유지되고 있다며 한일 양측을 안심시키려고 하였으나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동맹국들의 안전 보장에 대한 미국의 강한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 어느때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은 중국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들의 시각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한국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얼마 만큼 미일과 협력을 해 나갈지 분명하지 않지만, 이는 중요한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중국에 대한 일본의 인식은 어느 때와 같이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2 단계 가상 훈련 (TTX: table-top exercise)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단계에서는 북한이 핵시설을 신고하는 등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었으며, 남북간의 경제협력회담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북한과 일본 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동 시나리오에서 한미일 각팀은 북한 핵신고의 진정성에 대해 불신하며, 북한을 유인할만한 보상을 제공하는데 경계했습니다. 세 팀 모두 협상을 타결하기 전에 북한이 비핵화 관련 실질적인 조치를 추가적으로 더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 중 한국팀은 가장 수용적이었으며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본측은 북한의 제안에 중거리 미사일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데다 북한의 추가적 조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가장 비관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만약 북한에 “당근”을 제공할 경우 군사적 보상보다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어떤 팀도 북한의 요구 사항인 주한미군 감축이나 한미동맹 축소를 수용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일부 일본 측 참가자들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납북자 문제에 전혀 진전이 없다면 일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어떤 지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가상훈련 2 단계**

*남북 경협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비핵화협상은 중단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선언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대압박 (maximum pressure)을 다시 촉구했으며, 만일 한국이 대북압박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한미동맹을 파기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한편, 일본의 초계함인 북한의 해·공군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북한은 동해상 핵무기를 발사하였으나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파견되어 전쟁포로와 실종자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있던 미국인들이 북한당국에 의해 인질로 붙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핵 무력 시위가 사실상 나약함에 기반한 블러핑(bluffing)이라는 몇몇 미국 측의 주장은 일본팀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북한의 핵사용은 대북 억지력 상실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역내 억지능력을 재건할 방법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한 점이 미국의 대북 전략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일본팀이 미국팀에게 추궁했지만 미국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미국팀은 자국의 목표가 신속하고 확실한 북핵 제거였다고 밝혔지만, 이 부분이 다른 팀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협력을 공고히 하여 최대 압박을 복귀시켜 비핵화를 달성하는데에 주력했습니다. 미국팀은 일본의 요청시 군사적 대응 요청에 준비가 되어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일본팀은 미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측 참가자 다수는 북한의 행위를 전쟁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의 일본 함정 피격 및 핵무기 사용 이후 높아질 대중의 보복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는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미일동맹이 깨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측 참가자들은 일본의 강경한 대응을 이해하고 예상했지만, 일본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경우 북한이 한국을 향해 반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과 공조해 제한적인 수준에서 북한에 대응하기를 촉구했습니다.



# 변화와 불확실성 속 억지 유지

회의 보고서

동북아내 적극적이고 창의적 외교는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또 그로서 역내 정치 및 안보 역학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다. 지난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사상 최초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수 차례 만남을 가졌다. 북한과 역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잔뜩 부풀었던 기대감은 아직 충족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고, 이러한 기대와 현실간의 간극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 및 동 문제해결의 성패가 가져올 결과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퍼시픽 포럼은 미국 국방부 국방위협감소국(DTRA)과 미군 공군사관학교 PASCOC의 지원을 받아 2018년 8월 6일~8일 3일간 대북 관계의 변화, 핵 확장 억지 및 한미일 안보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하와이 마우이에서 47여 명의 한미일

전문가들과 퍼시픽 포럼의 영리더 (Yong Leaders) 5명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2단계 가상 훈련 (TTX)을 통해 북한과의 협상에서 도출될 수 있는 두 가지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토의하였다.

”

##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에 담긴 화해의 메시지는 북한의 6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및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발언으로 높아진 약 1여년 간의 긴장 상태를 종식했다

”

### 봄 정상 회의 평가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북핵 관련 많은 변화가 있었다.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에 담긴 화해의 메시지는 북한의 6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및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발언으로

높아진 약 1 여년 간의 긴장 상태를 종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뛰어난 외교력으로 2018 년 4 월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이후 양 정상은 두 차례 더 만났다. 이에 고무된 (혹은 떠밀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정상 회담을 제안한 후 양 정상이 6 월 12 일 싱가포르에서 만났고, 이에 대한 놀라움은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 두 정상은 이 역사적 회담을 기념하고 향후 양국 관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된 2 페이지 분량의 싱가포르 선언 성명서에 서명했다. 이 선언은 미북간의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한반도 비핵화 및 한국전쟁 중 사망한 미국 유해 송환 등 내용을 담았다.

마우이 회의 참석자들은 북미 관계의 변화에 주목하고 이러한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접근 방식 시도 의지를 지지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정상 회담 결과에 대한 "실망," 좌절, 혼란 등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참석자들은 싱가포르 선언에 세부적인 내용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했다. 한 참석자는 싱가포르선언이 "부실하고 빈약하며 모호하며 애매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결정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가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는 동 결정이 한미동맹의 방어태세와 억지력에 미칠 영향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큰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대통령이 연합훈련을 북한이 그러하듯 "위계임," "도발" 등으로 묘사했다는 점, 또한 동 결정을 역내 동맹국들과의 협의 없이 발표한 점 때문이다. 한 한국 측 참석자는 이러한 결정으로 한국군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경고했다. 일본 참석자들은 일본의 안보 정책가들은 동북아를 단일 전구(戰區)로 보고 일본의 안보가 한반도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은 또 미국에게 한미 동맹 약화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초래할 행동을 취하지 말 것을 반복해서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북한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며, 북한이 정권 방어의 핵심인 핵무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참가자는 한 중국측 평가를 인용하면서 북한이 "풀은 자르되 뿌리는 뽑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취한 핵 실험장 및 미사일 엔진 시험장 파괴 등 비핵화 조치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되었다. 파괴된 실험장이 붕괴 위협이 있는 산에 위치해 어차피 더 이상 사용될 수 없으며, 엔진 실험장의 경우에도 북한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엔진을 다른 위치에서 실험할 수 있고, 북한의 조치가 불가역적인 것은 않으며, 필요시 실험장들을 또 설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보고서가 이러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김정은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동맹에 균열을 초래하고,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획득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시간을 끌 것으로 보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한 미국 참가자는 김정은의 신년사를 면밀히 분석해 그의 의중을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 지도부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은 위협이 제거되고 10-20 년 후에야 비핵화를 고려할 수 있고, 그 동안 미국과 북한은 ‘핵 보유국 대 핵 보유국으로서’ (비핵화가 아닌) 균축에 대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한 북한 고위 관료의 발언을 인용했다.

미국이 대북 관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채찍”을 잃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어느

<sup>1</sup> 중국에 대한 평가는 다른 세션에서 더 자세히 논의되었다.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최근 북한 관련 미국의 태도 변화와 남북관계의 진전 등을 고려했을 때 비핵화 노력이 실패했을 경우 강경노선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경우 대북압박을 위한 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sup>1</sup> 그런 배경하에서 참가자들은 최근 중국과 북한 간의 고위급 회담이 재개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sup>2</sup> 중국이 안전 보장을 제공해 북한의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의 노력을 통해 북한이 협상에 임하도록 장려하기 보다는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해 북한을 지원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도록 종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참석자들은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이 억제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일부는 남북미 3 국이 모두 관계 개선에 전념하고 있는 와중에 한미 양국이 균현대화, 방위 태세 격상 등 안보 정책에 우선 순위를 매기기가 어려울 것이라 걱정했다. 한국 정치인들이 어렵거나 분열적인 국방 문제에 정치 자본을 소비하는 것은 특히 어려울 것이다. 한국 대중이 북한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선호한다는 점을

<sup>2</sup> 의외로 발표자들이 북-중 (혹은 미-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발표 후 토론과정에서 이 사안들이 다루어졌다.

보았을때 더욱 그렇다. 물론 그러한 성향은 남북관계 악화의 잠재적 위협을 고려하면 이해가 가능하다. 2018 년 들어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한국민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김 위원장과의 정상 회담 이후 급상승했다. 한국의 보수 층에서 나타난 불만은 미국이 북한에게 놀아난다는 점으로 쏠려있다. 남북한의 신뢰구축을 위한 협의와 이행은 환영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북한으로 하여금 회담을 중단할 변명의 여지를 줄 수 있는 국방 전력 증강 조치들을 취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났다.

”

**참가자들은 외교적 성과에 안도하는 동시에 회담이 실패할 경우 상황이 악화되어 심지어 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

궁극적으로, 참가자들은 북한 외부에서 북한내 의사 결정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 동의했다.

김정은이 왜 지금 시점에 외교적 수단을 선택했는지 분명하지 않다. 일부 참석자들은 경제제재의 피해가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다른 참가자들은 북한이 이미 핵 프로그램의 초기 목표를 달성 했기 때문에 다른 옵션을 모색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다. 한 한국 측 참석자는 다소 냉소적으로 김정은이 필요한 경우 핵무기를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일본 측 참석자는 북한이 “행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기 전에 좌회전을 하는” 전적이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 선언을 확대해석하지 말아야한다고 경고했다. 한 미국 측 참석자는 김정은이 대북, 대남관계 발전, 경제 발전, 핵무기 모두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미일의 정책 목표는 북한이 이 모두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모두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바람직한 정상 회의 결과

실제 회담결과와 바람직한 회담결과를 비교하는 와중에 참가자들은 최근 달성한 외교적 성과에 안도하는 동시에 회담이 실패할 경우 상황을 악화시키고

심지어 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이러한 위험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북한의 외교가 세 동맹국간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한미일의 정책 목표는 같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 협정, 미국 및 역내 국가들과의 평화적 관계 추구), 그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에 대해선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 비핵화의 과정에 대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간에 큰 이견이 있다. 한국은 미국에 더 인내할 것, 북한의 핵무기 신고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말고 비핵화의 기준을 낮출 것을 원하는 반면, 미국과 일본은 한국이 북한과의 신뢰구축조치를 우선시하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일부 한국 측 참석자들 역시 한국 정부가 비핵화보다 신뢰구축에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일부 한국 참석자들은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너무 빠르게 진행하며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영향력을(leverage)

낭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미국 측 참석자는 미국과 일본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반면,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처럼 북한 문제를 '관리'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 한국 참가자는 중국과 러시아와 한 패가 된 것을 달갑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핵 협상은 핵무기 뿐만 아니라 다른 대량 살상 무기, 미사일, 그리고 인권 문제도 포함해야 한다. 일본 참석자들은 납북자 문제 역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안건을 포함할 경우 협상이 진전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강경파들도 동의하는 바, 인내심을 갖고 점진적으로 협상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협상을 위한 협상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일부 미국 참석자는 미국 정부가 이미 이런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한탄했다).

한 일본 참석자는 선호하는, 수용가능한, 수용불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제시했다. 선호하는 결과는 3-5년 정도 내 CVID<sup>3</sup>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달성이다. 이는 북한이 모든 핵

---

<sup>3</sup> 미국은 최근 북핵 협상의 목표로 CVID 대신 FFID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미국 관료들은 용어가 바뀌었을 뿐 목표는 그대로라고 주장한다.

물질과 시설을 신고하고, 핵 사찰을 수용하고,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고 (혹 폐기되지 않은 핵탄두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찰이 있어야 한다), 모든 미사일을 해체하고, 또한 핵분열물질 생산시설 폐쇄 혹은 해체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용가능한 조건은 '현상 유지 플러스' (현상 유지는 수용불가능함)로, 북한이 모든 핵 물질과 핵 시설 신고하고, (제 3 자가 아닌) 북한 당국이 핵탄두를 폐기하고, 미사일과 우라늄 농축 능력은 유지하되, 핵 연료 재처리 능력은 폐기할 것을 포함한다. 또한, 한미 및 미일의 동맹은 현 수준 유지, 한일의 지속적 협력, 중국의 대북 영향력 현상유지 등을 포함한다. 수용불가능한 결과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포함하지만 모두 기본적으로 북한이 상당한 핵 역량 보유, 미국의 역내 군사적 영향력 축소, 일본에 대한 북한의 위협 제고, 한일 협력 축소 등을 포함하는 시나리오다. 이 참석자는 "북한과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편이 이러한 시나리오보다 낫다"고 덧붙였다.

토론 중 몇 가지 이슈와 이견이 제기되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과 동맹국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너무 치중하는데 대한 불만도 있었지만, 미국의 행동에 대한 우려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한 미국 측 참가자는 "동맹관계에서 첫 번째 원칙은 동맹국을 놀라게 하지 않는 것인데, 미국은 동맹국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측 참가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싱가포르 회담을 성공적이라 평가했지만, 사실은 미국을 북한과 협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어 넣었다면서, 미국의 협상 태도와 협상에 대한 평가에 대해 비판했다. 다행스럽게도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로서는 동맹이 "아직은 디커플링 (균열)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몇몇 참석자들은 미국의 최근 행동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양국이 북한을 상대하는 데 드는 비용과 동맹유지에 들어가는 전반적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더욱 증폭 되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대북관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양국간 디커플링으로 향하는 단계라는 (또는 그렇게 해석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한국측 참가자는 디커플링 리스크가 실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동맹국간의 균열이라기보다는 정치지도자, 전문가, 그리고 대중간의 균열이라고 주장하며, 대중이 회담의 실질적인 결과보다는 가시적인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이슈는 평화 협정 또는 종전 선언과 비핵화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종전 혹은 평화 협정 체결이 동맹국의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는 앞서 언급한 디커플링에 대한 우려와 맥락을 같이 한다), 더 나아가 동맹의 정당성을 약화시켜 한반도에서의 (심지어 동북아에서의) 미군 철수로 이어지고 미국이 한국의 안보 문제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런데 여기서 협정과 선언은 구별되어야 한다. 현 시점에서 평화 협정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지만, 종전 선언은 일부 미국 참석자들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인식했다. 하지만 한 한국 측 참석자는 종전 선언도 한국 젊은층으로 하여금 남북관계에 대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젊은 한국 측 참석자는 본인의 또래들이 그렇게 우매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한국 참석자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종전 선언 작성시 참고할 만한 좋은 예시가 될 것이라 제안했다.

세 번째 이슈는 신뢰구축과 비핵화 사이의 갈등이었다. 물론 전자는 후자를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북한이 신뢰구축을 핑계로 비핵화를 지연하고 심지어 방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 논리에 따르면, 북한은 협상에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과의 신뢰구축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며, 미국과 일본이 비핵화 촉구는 신뢰관계 구축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으로, 신뢰구축을 북한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셈이다. 한 한국 참석자는 한국 정부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남북간 신뢰구축조치 민감한 부분들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핵실험을 무리하게 강요한 것이 6자 회담의 패인있었던 바를 상기시키며, 지나친 요구는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참가자는 3자간 협력을 증진하고 심화시켜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북한의 핵 확산을 방지하는데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3국은 대북 작전의 목표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 작전과 역량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협상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대북제재 관련 공동 전선을 유지하는 것은 효과적인 대북정책에 필수적이다. 한국과 일본

참가자들은 자국 정부 간의 협력은 물론 군대 간의 협력도 강화할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러한 협의의 이면은 북한이 기대에 응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취했을 때 어떻게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가이다.

”

**...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에 부여한 의미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참가자들은 북한의 사고방식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북한이 어떻게 의사 결정을 내리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북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 할 것이다. 특히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에 부여한 의미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협상의 전망 및 협상 실패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예측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 시나리오 1 단계

이번 한미일 확장억지대화는 지난 회의들과 마찬가지로 2 단계 가상훈련(TTX)으로 구성되었다. 올해의 시나리오는 두 가지 상반된 협상 결과를 담았다. 첫 번째로는 협상이 (3 국 모두에게는 아니지만)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을때고, 두 번째는 협상이 결렬 되었을 때이다. 두 단계는 순차적으로, 성공적인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시기에 협상을 결렬시켜 그 영향을 극대화했다.<sup>4</sup> 과거와 마찬가지로 참석자들은 자국 팀에 들어가 국가 안보팀의 일원으로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1 단계에서는 북미간 핵 협상 및 남북간의 회담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 북한은 핵시설로 의심되었던 모든 시설 뿐 아니라 기존에 식별되지 않았던 2 개의 핵시설 및 45 개의 핵탄두와 30kg 의 플루토늄 및 400kg 의 고농축 우라늄으로 구성된 핵무기 목록을

---

<sup>4</sup> 이 두 시나리오는 첨부 C에 포함되어 있다.



제출했다. 북한은 한미일 3 국을 제외한 IAEA 등 제 3 자에 의해 핵시찰을 받을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핵무기 및 미사일 실험을 계속 동결하기로 했으며, 북한의 선의에 대한 증표로 화학무기 및 핵분열물질 잔여물을 제 3 국을 반출하는데 동의했다. 북한은 또한 미국, 한국,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될 경우 북한의 전략 무기 포기에 대한 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본과 북한 관계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다. 각 팀은 아래 다섯 개의 질문에 답했다:

- 귀 정부는 북한의 핵 신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합니까?
- CVID 혹은 기타 유사 용어들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가야 할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 과정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선호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한미일이 CVID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 귀 정부는 북한과 전략 무기 거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에 양보할 수 있는 3 가지는 무엇입니까?
- 귀 국의 역량과 외교적 제약을 감안해 핵탄두 제거, 핵 물질 제거,

모든 WMD 제거, 핵 생산 시설 해체, 미사일 생산 시설 해체, 검증 프로토콜 수립, 북한의 밀수 네트워크 식별 등 중 우선 순위를 정하십시오.

- 3 국이 역지력 유지를 위해 공동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 다섯 가지를 열거하십시오. 역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3 국은 어떤 노력을 해야합니까?

한국팀은 북한의 핵신고를 "좋지만 아주 좋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단, 문재인 행정부는 이와 같은 핵신고를 훨씬 더 높이 평가할 것이라는 점을 덧붙였다). 북한의 핵신고의 규모가 참가자들이 바랬던 것보다 작았다. 한국 참가자들은 비핵화의 틀에도 만족하지 않았다. 북한의 IAEA 사찰 수용 뿐 아니라 보다 명확한 비핵화 시간표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비핵화는 물질, 무기, 시설 및 인력도 포함되어야 하고 검증은 한미일의 지원으로 IAEA 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전략 무기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장려책으로 북한 정부의 합법성을 인정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이는 언뜻 우리가 없어 보일지 모르나 한국 헌법에 배치되는 일이다). 한국팀은 또한 비핵화와 발맞춰 군축도 진전시켜 나갈 것이며, 유엔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북한 마셜플랜, 즉 경제협력도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북한과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단호하게 밝혔다. 한국팀은 또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IFIs) 가입에 대한 원조도 북한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으로 거론했다.

파트너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으로는, 우선 일본측에게는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을 요청할 것,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아시아 개발 은행 (ADB)을 동원해 북한의 IFI 가입을 지원할 것, 대북 투자 및 경제지원을 제공할 것 등을 요구할 것이다. 미 행정부에게는 (의회의 지지없이 행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외교관계 수립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회담을 지속할 것을 요구할 것이고 또한 북한 경제발전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또한 미국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일방적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당부할 것이다.

한국의 우선순위는 핵탄두 제거 - 미사일 제거 - 핵물질 검증 - 관련 핵 시설 해체 - 기타 대량살상무기 제거 -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노하우

네트워크의 종식 순이었다.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각각 22,000 명의 이상 병력의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유엔군사령부 체제 유지, 한일 해상경비태세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3 국간의 협력 제도화와 이를 목적으로 한 부처간 협력 메커니즘 수립을 건의했다. 방위태세 개혁을 통해 한국의 국방에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선 국방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팀은 마지막으로 어느 국가도 디커플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방적인 움직임을 보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팀의 발표에 대한 질의는 두 사항을 초점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북한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한국에 정치적, 법적 논란을 야기하는 정도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 측 참가자들은 한국 정부가 91 년도 이후 북한 정부의 실질적 주권을 인정한 만큼, 이 사항은 향후 진행될 합의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두 번째 이슈는 동 시나리오에 나타난 동향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한 한국 측 참가자는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패자”로 중국을 지목하며, 남북관계가 증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이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남북평화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중국의 희망을 깨뜨렸다고 주장했다. 한국 측 참가자 다수는 한미동맹이 주한미군기지를 기반으로 역내 다른 지역에서도 군사협력을 고려할 때라고 언급했다. 한 참가자는 또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 한미동맹을 생각할 때”라고 주장하며, 한국 국민의 80%가 남중국해에서의 3국 협력을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였다. 이는 3국이 억지 방식의 모드를 전환해야한다는 또 다른 한국 측 참가자의 제안을 뒷받침했다.

일본팀은 이 시나리오에 대해 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이 핵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핵 폐기, 미사일 생산 중단, 핵시설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만족할 만 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일본은 CVID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상존하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명하며, 동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CVID 개념에 기존의 핵시설 목록, 핵 폐기, 이에 대한 IAEA 및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P5)의 검증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CVID가 모든 핵관련 시설 제거 및 핵과학자 이송 및 지속적인 검증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증 방법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P5 + 일본 + 한국 혹은 북한을 제외한 6자 회담국 + 영국 + 프랑스 등 옵션이 언급되었는데, 일본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만일 일본이 배제된다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일본의 재정적 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본팀은 또한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성명에 대해 불편함 감정을 토로하면서도, 미국이 비핵화 검증을 이끌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의 전략 무기 포기를 장려책 관련해서 일본팀은 우선 “전략 무기”에 대해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전략 무기에 모든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 대량 살상 무기를 포함시키고, 북한의 전략 무기 포기에 대한 댓가로 일본 단독 대북 제재 완화, 인도주의적 및 경제적 지원 및 국교 정상화 등을 제안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어야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외교관계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팀은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하며, 성급한 행동으로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우선순위는 검증 절차 - 핵탄두 제거 - 탄도미사일 제거 - 기타 대량살상무기 제거 - 핵 시설 해체 - 미사일 생산 시설 해체 - 밀수 네트워크의 종식 순이었다.

역지력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일본은 미국 리더십 하에서 동맹관계를 보다 공고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또 합의한 바를 이행하기 위한 고위급 후속조치 협의체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일 3 자 작전 계획 수립 및 훈련을 지지했으며 미사일 방어 체계 (MD)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는 반격 (counter-strike) 역량 강화를 주장했다.

일본팀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북한을 신뢰할 수 없고, 북한이 실질적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동시나리오는 2005 년 6 자 회담의 반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북한의 목적이 미국과 역내 국가들간의 동맹을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이 협상 테이블 위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기를 원한다. 한 일본 측 참가자는 미국에게 "주한미군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 한미 연합 훈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 없이는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다른 일본 참가자들도 이에 동의하며 CVID 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북한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현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양보하는 것은 "막대한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한국 측 참가자가 일본의 답변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다. 이 참가자는 3 자간 협력을 지지하면서도, 일본의 일부 제안은 한국내에서 정치적 민감한 사안이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실용주의를 촉구하며 3 국의 장래 안보 관계에 대해 공동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 팀은 북한의 핵신고에 대한 일본의 회의론에 공감하고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면이라도 핵신고 조치를 상당히 놀랍고도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미 존재하는 핵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완전히 보고된 것으로 보이지만 핵무기를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잠재적 핵능력에 대해서는 빠져있는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 미국팀은 FFVD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CVID 의 대체 문구)는 핵탄두, 물질, 생산 시설 등 뿐만 아니라 미사일과 미사일 생산시설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화학 무기는

중요하기는 하나 비핵화에 필수적인 것인 아니라고 입장을 취했다. 또한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지만, IAEA 과 역할 분담을 할 것이고, 핵확산금지조약 (NPT)이 일본과 한국 등 비핵보유국이 민감한 비핵화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므로, 한일은 생화학 무기 처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했다.

북한의 전략 무기 포기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팀은 다양한 옵션을 제시했다. 정치적 방안으로는 평화 협정과 안전 보장을, 경제적 방안으로는 제재 완화와 교역 및 금융 지원을 제시했다. 군사적 방안으로는 구체적인 조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다음 두 가지 원칙에 입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 북한에게 당근을 제공할 필요성과 강력한 억제력 유지할 필요성의 균형 잡힌 태도를 견지한다. (2) 동맹을 파기하거나 미군 철수 등의 제안은 수용하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이며, 한미일은 이에 따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어떤 방안을 택할 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팀은 정치적 목적이 달성되고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때만 군사적 태세 변화 또는 감소를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동맹국들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일본에게 남북자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인내심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우선 순위는 핵 탄두 - 핵 물질 - 검증 - 생산 역량 - 기타 대량살상무기 - 밀수 네트워크 순이었다. 미국 팀은 덧붙여 이러한 비핵화 조치에도 북한이 잠재적으로 핵을 다시 생산할 수 있는 위험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 관련, 미국팀은 북한의 목표가 3 자동맹을 분열시키는 것인바 3 국이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동맹의 견재함을 과시할 것, 북한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것, (북한은 한미일이 적대적인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북한을 특정 위협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불특정 위협에 대처하는 유연성을 높이는 역량을 공동으로 구축할 것 등을 제안했다. 또한 생화학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공공보건시스템 구축 및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난 구호 역량 강화도 제안했다.

미국 참가자들은 그들의 의견이 미국 국가 안보 정책 결정자들과 유사할 것이라고 보이지만, 현재 미국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정보 기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신념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는바, 동시나리오와 같은 상황이 발생시 현 미 행정부가 어떠한 결정을 할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국팀의 발표에 대한 질의 사항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미국팀이 일본측에 납북자 문제 관련 인내심을 가질 것을 요구한 점이다. 이에 대한 일본팀의 반응은 둘로 갈렸다. 한 참가자는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납북자 문제를 경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다른 참가자는 납북자 문제와 비핵화는 별개의 문제로 그 두가지 사안을 동시에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일본 측 참가자는 이러한 어려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만약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소한 일본이 북핵 협상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쟁점은 미국이 북한의 진실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어떻게 보고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 시설 목록에 군사 기지를 포함시킨다면, 이는 미국은 북한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인지 물었다. 일본 측 참가자는 미국이

북한에게 어떤 양보를 하던 간에 이는 전반적 동맹 관계를 고려하며 결정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2005 년 미국이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안했을 때 이는 더 광범위한 합의 중 일부이었음을 상기시키며, 대북 안전보장이 확장 억지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별 개로 다루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몇몇 한국과 일본 참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보다는 국내 정치적 계산에 의해 정책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 TTX 2 단계

2 단계에서는 상황이 악화되었다. 남북 경협 부분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북미간 핵 협상은 중단되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최대 수준의 대북 압박을 촉구했고, 한국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한미동맹을 해체할 것이라 위협했다. 한편, 일본의 초계함이 북한의 해·공군에 의해 습격을 당했으며, 북한이 동해상에서 핵무기를 폭파시켰다. 단,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북한에 파견된 미국 유해발굴단이 북한 당국에 의해 인질로 붙잡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팀은 아래 다섯 문항에 응답했다:

- 다른 2 개 국가가 취해야 할 행동 다섯 가지를 나열하십시오
- 다른 2 개 국가가 취하지 않기를 바라는 행동 다섯 가지를 나열하십시오.
- 2 단계 시나리오에서 귀 정부는 북한에게 어떤 메시지는 보낼 것입니까?
- 현 무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귀 정부가 취하고 있는 다섯 가지 군사 단계는 무엇입니까?
- 귀 정부는 핵폭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번 단계에서는 **일본팀**이 먼저 응답하였다. 일본은 사건 정황과 조선중앙통신의 성명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자국의 초계함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전쟁 행위”라고 선언했다. (일본정부는 실제로 “방어 명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인데, 2 년 전 실시한 TTX 에서 비슷한 발표했을 때 타국 참가자들에게 일본법상 “방어 명령” 이 지니는 중대성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서, 정확히 의미 전달을 위해 북한의 행위를 “전쟁 행위” 라고 규정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일본팀은 미국이 일본의 방어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지를 표명하고, 집단 방위권을 행사하고, 자위대와 합동

작전을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정밀 타격 등의 형식으로 군사적 보복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은 또한 미국이 한반도 부근에 폭격기와 잠수함 등을 동원한 핵무기를 동원한 군사작전을 개시해야 하며, 일본의 방사능 오염 물질 제거 노력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이 유엔 안보리로 하여금 해당 안건을 상정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비난과 최대 수준의 압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본은 동 상황에 상응하는 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민간인 대피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일본은 주한미군을 철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한국측에는 일본이 북한에 정밀 타격의 형태로 선제공격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반대하지 않을 것, 민간인 대피 및 대북 지탄 등 일본의 노력을 도와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은 북한을 옹호하거나 유화 정책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에게는 중국에게 북한을 지탄하라는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추가적 도발이 있을 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할 것이다. 이는 미국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팀은 일본의 군사대응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적 군사적 조치로는 정보 수집 강화, 피격된 초계함 수색 및 구조작업, MD 작전 활동 강화, 민간인 대피 준비 등이 포함될 것이다. 또한 동맹조정메커니즘 (ACM: Alliance Coordination Mechanism)을 통해 미국과의 합동 작전 추진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내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할 필요성에 대해선 일본팀 내 이견이 있었다.

일본팀 입장에 대한 논의는 세 가지 쟁점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일본 대응이 합법적이었는가 하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측 참가자들은 이번 대응 방식이 2년 전 가상 훈련 당시 일본 영토에 대한 공격을 당했을 때 대응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음에도 그 때는 일본의 대응이 미약하다고 비난을 받았었다고 지적하며, 이번에 다른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더 강도 높은 언어를 사용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은 그 때와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북한의 피습이 북한 해역에서 일어났는지, 일본 영토에 대한 공격인지 (따라서 상호방위조약 제 5 조에 적용되는지)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었지만, 이보다는 일본이 습격을 당했다는 사실과 일본이 스스로 방위를 해야하는 점, 그리고 추가적 도발을 막아야한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쟁점은 미국의 대응 방식이 적절한지, 전면전 확대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일본팀 전원은 미국이 군사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시에는 동맹이 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팀은 자국 국방에 있어 자신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하지만, 일본의 역량에 한계가 있으므로 미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덧붙였다.) 일본팀은 북한에 대한 초정밀공습이 제한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핵전쟁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단호한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세 번째 쟁점은 동북아내 억지력에 대한 평가였다. 일본팀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핵무기 사용 자체만으로도 역내 확장 억지가 실패했음을 의미한다면서, 한미일은 확장 억지를 재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과 미국은 추가적 핵 도발을 막고 핵 확장



역지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궁극적 목표가 북한의 정권 교체인지 핵 확장 역지의 회복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본팀은 두 옵션 모두 일본 스스로 달성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일본팀의 토론 내용으로 봤을때 일본팀이 확장 역지 재건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한국팀은 2 단계 시나리오가 한국이 가장 우려하는 최악의 상황이라면서, 북한의 벼랑끝전술이 동맹을 와해시키고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며, "평화 구축을 위한 강력한 대응"을 추구했다. 다섯 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 한국팀은 미국과 일본을 구별 없이 한미일 3 국간 정보 공유, 방어태세 증강, 결연한 의지 표출 등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미국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팀은 미국이 해야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트위터를 자제할 것, 일방적 군사 행동을 취하지 말 것, 한국 경제에 위협을 가하지 말 것, 최후의 수단이 아닌 경우에는 주한 미국 시민 대피를 고려하지 않을 것 등 언급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적대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한국이 북한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짧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한국 정부가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접근 비행, 항공모함 전투단 및 PAC-3 포대 추가 배치 등을 통해 미군 병력의 추가 주둔을 요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조치들에 대해 금전적으로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제한적 타격이나 무력 시위 등의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한국은 미국의 성급한 군사적 조치는 한국내 일부 단체들로 하여금 한미동맹을 해체하려는 움직임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한국 측 참가자는 한국내 "죽음보단 공산주의가 낫다"고 믿는 세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확장 역지 역량을 평가하고 역량 제고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팀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강력한 지탄하고 북측에 있는 모든 한국 국민을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한국은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이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켜 보호할 노력을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타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대북 선제공격은 일본을

대신해 미국이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한국과 먼저 협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렇지 않다면 군사적으로는 승리를 거두더라도 막대한 희생이 따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한국팀은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 측 참가자들은 일본이 군사적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한국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군사활동은 한국과의 군사, 외교적 관계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팀은 또한 한미일 3국의 군사적 대응은 (미일 양국 혹은 미국의 단독 조치일지라도) 한국내 반대여론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일본팀은 대북군사조치를 위해 3자 회담을 제안하려고 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이 제안을 반대할 것이라 우려해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일본 측 참가자들은 협의를 해야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한미 양국 간 논의에도 일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전쟁 여부를 제외한 여타 대응방안에 대해 한국과 상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을 통해 북한의 전술에 대해 한국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한국 측 참가자들은 북한이 핵전쟁을

불사할 의사는 없고 단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escalate to de-escalate) 전략을 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미국의 핵 보복은 불필요하며, 대신 미국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다면 북한이 결국 한 발 물러설 것이라고 보았다.

미국팀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시 한국내 안보 전문가들이 한국팀이 발표한 것과 비슷한 분석 및 조언을 제공할 것이라 확신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보좌관들이 이러한 조언에 따를 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미국팀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 이상 결코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간결한 메시지로 발표를 시작했다. 미국팀은 미국이 수용가능한 유일한 결과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임을 분명히 하고, 2014년 발표된 4개년 국방전략보고서(QDR)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국은 재래식 무력도발의 실패를 무마하기 위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지니고 있으며, 만약 북한이 추가 핵 시위를 감행할 시 미국은 모든 수단을 통해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미국팀은 또한 잠수함과 해병 원정부대, 항공모함 전투단 등을 배치함으로써 방위태세를 재래식 전쟁 수준으로 격상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재래식 수준을 넘어 확전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내 및 동북아 MD 경보 수위를 격상시키고, 정보·감시·정찰 (ISR) 기능을 강화해 로켓 요격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sup>5</sup> 미국은 북방 한계선 (NLL) 경비를 강화하고, 한일 양국과 민간인 대피를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우선순위는 군사적 긴장 상황을 완화시키는 것이지만 긴장 상태가 고조될 때를 대비한 옵션 역시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팀은 일본함정 피습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일본의 도움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팀은 이번 북한의 핵 사용은 실험이 아닌 무력 시위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외교, 정보, 군사, 경제 (DIME) 틀 내에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적 측면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지탄하도록 유도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중국이 대북 비난 및 제재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보 부문에서는 긴장 완화와 고조 상태를 대비해 만반의 방위 태세를 준비하고, 동맹국들에 공개적 및 비공개적 루트를 통해 미국이 동맹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이며 모든 조치는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군사적 대응의 일환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신호로서 핵 폭격기와 F15E 를 괄에 배치할 것이지만, 동 무기들에 핵탄두를 탑재하지는 않을 것이며 핵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은 지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북경제제재를 재개하고, 북한과 교역하는 선박을 차단할 것이며, 또한 중국을 통해 금융 자산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노력 등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팀은 동맹국들에게 병력을 동원하고 경제제재에 협력하기를 요구하고, 한일 양국이 미국과 사전 협의 없는 독단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그리고 중국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 정부에 북한과의 인프라 건설 협력을

---

<sup>5</sup> 동 시나리오는 북한 위성발사를 포함한다.

포함한 모든 경제협력을 일절 중단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일본에게는 동맹조정메커니즘(ACM)을 구축해 일본 선박 피습 사건 및 납북자 문제 관련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현 미국 행정부로부터는 명확한 메시지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의 의사소통 방식은 불명확하고 간혹 충동적일 것이며, 트윗 역시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팀은 모든 행동이 동맹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점은 이번 가상훈련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자 3 개국 팀 모두가 지지한 점이기도 하다. 특히 북중러가 한미일 동맹을 와해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3 자 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미국팀 발표에 대한 토론은 북한의 시위성 핵무기 사용이 핵억지의 실패를 뜻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억지력을 재건하고 동맹국들에 안보를 보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일본 측은 거의 만장일치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억지력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통해 동맹의 굳건함을 입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일본은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자제하는 미국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주장했다. 한 참가자는 일본 국민들이 미국의 강력한 군사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며, 그러지 않을 경우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한국 참석자가 이에 동의하며 미국의 반격이 없다면 이는 핵 확장 억지의 붕괴를 뜻하므로, 북한은 더 대담해 질 것이고 한일 양국이 핵 무장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참가자들은 그들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우선 미국팀은 명확한 최종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하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동맹국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타깝게도 미국의 목표가 북한 비핵화라는 간단한 메시지를 동맹국들에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는 분명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웠다. 두번째로 미국팀은 미국이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할 경우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에 보복 공격을 감행할 위험을 높다면서, 너무 강경한 대응보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되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미국은 비핵화의 방식에 대해서는 북한에게 일정 부분 결정권을 주겠지만,

비핵화라는 목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참가자들은 미국팀에게 북한의 핵 역량이 미국의 대응 수준에 영향을 미쳤는지 물었다. 동맹국들은 북한이 미국본토까지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미국이 군사적 대응을 자제할 것은 아닌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팀은 어떻게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 역량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면서 한국과 일본측의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작년에 개최된 한미일 전략회의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미국이 북핵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점을 두고 판도를 바꿀만큼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할 경우 이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하여금 (또는 적국에게도)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비록 미국팀이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정부는 동맹국들의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역내 억지 실패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더 깊은 논의가 있었다. 북한의 행위로 핵무기 사용의 문턱이 낮아졌으며 (이는 국제안보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대한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있었지만, 이번 핵무기 사용이 핵 억지력의 실패로 봐야 한다는 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미국 측 참석자는 북한의 핵 무력 시위가 북한이 인명살상이나 확전을 꺼려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북한의 강인함이 아니라 오히려 나약함에 기반한 블러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참가자들은 이러한 평가에 반대하며 북한의 행동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미국의 동맹국 방어 의지는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고 강조했다. 효과적인 억지력은 상대가 핵을 사용해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인식할 때 가능한데, 북한은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핵 능력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핵무기가 북한을 더 강하게 해준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 합리적인 행위자라면 누구나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고, 따라서 역내 핵억지는 여전히 견고하다.

”

**수 년간 사실상  
단절되었던 북중관계가  
정상화되었다.**

”

## 중국의 역할

마지막 세션에서는 중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참가자들은 중국과 역내 주요 국가간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의 역할을 평가했는데, 주로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북중관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년간 사실상 단절 상태에 있던 북중관계가 정상화되었다. 한 참석자는 김정은이 한국 및 미국과 접촉하기 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했던 김정일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을 이용해 한미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는 것인지 (중국도 이를 자신들의 레버리지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용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이 북한을 조종해 협상으로부터 자신들의 이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어느 쪽이든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참석자들은 또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회유 또는 압박해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주기를 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에 응징을 가할 용의가 있다는 신호를 전달한 바 있다. 그런데 미중관계가 악화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이제 한반도 문제와 미중 관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중국의 딜레마는 북미관계가 악화할 경우 중국의 외교정책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한편 북미관계가 너무 좋아질 경우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될 위험이 있다는 점인바, 중국은 북미협상 타결로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어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의 대중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 관련 중국과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드 (THAAD) 배치 이후 중국이 취한 강경한 응징조치로 인해 중국에 대한 시각이 악화되었다. 한국 대중의 공분을 산 중국발 경제제재로 시진핑 주석에 대한 한국 대중의 지지도가 역내 지도자 중 가장 낮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 한국 측 참석자는 한국내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에서 중국을 한반도 문제의 해결책이 아닌 문제의 일부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참가자 중 일부는 한중관계 악화가 한일간 화해무드 형성 및 한미일 협력 증진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 팀 모두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일본은 예전부터 중국에 대한 회의감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한미 양국은 중국에 대한 시각이 전보다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한 일본 참석자는 지난 20년간 북한 문제가 일본의 국방력 증강을 정당화왔는데,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 안보정책이 중국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의 국방 전략 및 계획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미국의 대중정책이 관여 (engagement)에서 전략적 경쟁 (strategic competition)으로 수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중 정책에 대한 논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는데, 이 전략은 최근 많이 회자되고는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 컨셉이다. 미중 관계가 점점 더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지고는 있지만 적대적인 수준은 아니며, 역내

국가들을 서구와 중국 중 양자택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규칙을 기반으로 국제질서 수호를 목표로 한다. 그런데 동 전략을 택한 국가들이 중국의 동향을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국 참석자들은 인도-태평양 개념의 논의와 실행에 있어 배제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인도-태평양 전략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을 희망하면서도, 한미일 동맹이 더 우선 순위임을 밝혔다).

## 미래를 내다보며

동북아시아 내 안보 역학관계가 변화하고 있다. 한미일 3 국은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안보와 국익을 보호해 나가야 한다. 그러한 노력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겠지만, 동 회의와 같은 비공식 채널을 통한 대화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금번 한미일 확장 역지 대화에서는 진솔한 토론이 오갔다. 장시간의 대화로 참가자들이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만큼 단지 형식적인 내용이 아닌 실질적이고 진솔한 토론을 할 수 있었다. 또한 한일간 및 한미일간 협력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과거사 문제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다.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안보 보장 의지를 설득시키는 것은 항상 난제였지만,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향상되고 미국이 상충되는 시그널을 보내면서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러한 불안을 불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동맹국들은 한 한국 참가자가 주장했듯, “우리의 안보 우려를 이해하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취해달라”라는 다소 불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창의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측면은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을 낳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일간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이러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동맹국들에 대한 지지 및 존중은 미국의 안보보장 약속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금번 한미일 확장 역지 대화와 여타 유사한 회의들은 한미일 공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프로젝트는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3 국 주요 인사들은 토론을 통해 도출된 내용들에 대해 듣고 싶어하며, 우리가 한미일 확장역지 대화를 지속해 나가도록 격려해야 한다. 그러나 더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도 있다.

향후 회의를 위한 다음과 같은 추천 사항이 있었다.

- 역지의 대상으로 중국에 초점을 맞출 것.
- 국가별이 아닌 동맹간 팀을 구성할 것.
- 비핵화 과정이 길어질 경우 (예를 들어 10 년) 역지 역량을 지속하기 위해 어떠한 군 태세가 갖추어야 하는지 논의할 것.
- 한, 미, 일 각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각기 다른 속도 및 양상으로 진행될 때 3자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양상에 대해 논의할 것.
- 역지 문제 관련 애매한 영역 (grey zone)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

---

Brad Glosserman 은 티마 대학교 규범수립전략센터 부 디렉터이자 병문 교수이며 퍼시픽포럼 선임 고문입니다.

---



# 첨부 A

한미일 3자 전략적 대화  
로얄 라하이아 리조트, 마우이,  
2018년 8월 6-8일

## 일정

### 2018년 8월 6일 월요일

오후 6:30      **개회 만찬**

### 2018년 8월 7일 화요일

8:00 AM      **아침 식사**

9:00 AM      **Bob Girrier 개회사**

9:15 AM      **세션 1 : 외교 - "봄 정상 회의" 평가**

6월 12일 한미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성공 또는 실패의 기준은 무엇인가? '봄 정상 회의'를 촉진시킨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봄 정상 회의"의 성과, 기회, 비용 및 위험요소, 역지력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의장:              Ralph Cossa

발표자:          Evans Revere, 김영호, 마타케 카미야a

10:45 AM      **커피 브레이크**

11:00 AM      **세션 2 : 바람직한 정상 회의 결과**

북미와 남북 회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 과정에서 일본의 위치는 어디인가? 각국이 희망하는 최종 목표는 무엇이며, 각국이 선호하는 목표와 수용 가능한 목표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 용납될 수 없는 결과는 무엇인가? 선호 혹은 수용 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은 무엇인가? 피해야

할 전략은 무엇인가? 각국은 단기 및 장기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가? 기회와 도전에 대한 각국의 평가는? 긴장 완화 국면에서 어떻게 역지력과 방어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세션의 전반적인 의도는 한미일이 공동의 목표 혹은 적어도 상호보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의장: Ralph Cossa

발표자: Lisa Collins, 최강, 노부마사 아키야마

12:30 PM **Brad Glosserman TTX 브리핑**

12:45 PM **세션 3 : 그룹별 점심 식사 및 TTX 1단계, 북핵 협상 성공 시나리오에 대한 토의 및 질문 답변 준비**

2:45 PM **세션 3A: 본회의 – 1단계 평가**

1단계 질문에 대한 답변과 결론 도출 과정 발표 및 질의 응답

의장: Brad Glosserman

5:00 PM **휴회**

6:30 PM **만찬**

## **2018 년 8 월 8 일 수요일**

8:00 AM **아침 식사**

8:30 AM **세션 4: 그룹별 TTX 2단계 북핵문제 실패 시나리오에 대한 토의 및 질문 답변 준비**

10:30 AM **커피 브레이크**

10:45 AM **세션 4A: 본회의 – 2단계 평가**

2단계 질문에 대한 답변과 결론 도출 과정 발표 후 질의 응답

의장: Brad Glosserman

12:45 PM      **점심 식사**

2:00 PM      **세션5: 중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각국은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특히 최근 김정은-시진핑 정상회담이 북핵협상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북한 및 동북아 내에서 중국이 맡고있는 역할을 어떻게 보는가? 북핵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경우 각국과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북중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핵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는? 이러한 사항들이 억지력에 미치는 영향을 무엇인가? 2017 년 미국 국가 안보 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8 년 미국 핵 태세 검토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2018 국방보고서 (*National Defense Review*) 등으로 나타난 미국의 정책이 미중 협력 전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미중 관계는 어떤 양상으로 나아갈 것이며 및 미중관계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는가?

의장:            Ralph Cossa

연사:            Scott Snyder, 전일범, Tetsuo Kotani

4:00 PM      **세션 6: Bob Girrier 결론/정책 제안 및 차기 회의를 위한 대화**

대화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결론 분석 및 3국간 안보협력을 위한 조치 및 차기 회의에서 다룰 주제들에 대한 토의

5:00 PM      **휴회**

## 첨부 B

한미일 3 자 전략적 대화  
로얄 라하이 나 리조트, 마우이,  
2018 년 8 월 6-8일

### 참가자 리스트

#### 일본

1. 아키야마 노부마사  
교수  
히토츠바시 대학

2. 아라이 유수케  
안보정책국 국가안보과장  
외무성

3. 이가타 아키라  
방문교수  
타마 대학

4. 켄 짐보  
교수  
게이오 대학교

5. 카미야 마타케

국제관계학 교수  
일본 국방대학

6. 카토 요이치  
선임연구원  
아시아 태평양 구상

7. 카토니 테츠오  
선임연구원  
일본국제정세연구원

8. 사토 타케츄구  
선임 국가안보통신원  
아사히 신문

9. 타카하시 수기오  
정책시뮬레이션 과장  
국방연구원

10. 토쿠치 히데시  
선임연구원  
국립정책대학원

국가안보문제 연구소장  
국방대학교

11. 츠루오카 미치토  
부교수  
게이오 대학교

17. 이형주  
선임연구원  
국방정보부

한국

12. 최강  
부원장  
아산정책연구원

18. 문소희  
3 등 서기관  
외교부

13. 전일범  
퇴역 장군  
대한민국 육군

19. 오순군  
군사전략과  
합동참모본부

14. 김기범  
선임연구원  
안보전략센터  
국방연구원

20. 박지광  
연구위원  
세종연구소

15. 김태우  
군사과학과 교수  
건양대학교

21. 손창호  
정세분석과장  
외교부

16. 김영호

22. 송호창  
객원연구원  
존스홉킨스 SAIS

미국

23. Elaine Bunn

전략 컨설턴트

24. Bill Chambers

정책분석가

국방연구소

25. Paul Choi

전략가, 한미연합사

국방부

26. Lisa Collins

코리아 프로그램 연구원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27. Ralph Cossa

명예 회장 및 WSD-Handa 평화

연구 의장

퍼시픽 포럼

28. Donald Cribbs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장

국방성 위협 감소기구 (DTRA)

29. Taylor T. Ferrell

주한미군 및 유엔사 정책과

유엔사령부

30. Robert P. Girrier

회장

퍼시픽 포럼

31. Brad Glosserman

선임 고문

퍼시픽 포럼

32. Candy Green

외교정책고문

인도-태평양 사령부

33. Robert Gromoll

지역정세과장

국제안보 및 비확산국

국무부

34. Jacqueline Hearne

일본과장

인도-태평양 사령부

35. Chuck Herbert

CCMD 지원

특수작전사령부

36. Heather Kearney

아태전략기획가

전략사령부

동맹부장

인도-태평양 사령부

**37. Matthew Kroenig**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조지타운 대학교

**44. David Santoro**

핵 정책 디렉터 및 선임연구원

퍼시픽 포럼

**38. Grace Park**

군축국

국무부

**45. Shane Smith**

선임연구원

국방대학교

**39. Crystal Pryor**

프로그램 디렉터 및 연구원

퍼시픽 포럼

**46. Brent Strong**

국방성 위협 감소기구 (DTRA)

**40. Evans Revere**

선임 연구원

동아시아 정책센터

브루킹스 연구소

**47. Scott Snyder**

한국학 선임연구원

외교협회

**41. Brad Roberts**

국제안보연구센터장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

영 리더

**48. Brent Bond**

외교 및 군사학 석사과정

하와이 퍼시픽 대학교

**42. Shelita Robinson**

전략기획가

국방성 위협 감소기구 (DTRA)

**49. 김라미**

정치행정학과 강사

홍콩 대학교

**43. James Ross**

**50. Kalani Stephens**

아시아 연구 및 경제학 학부과정  
하와이 대학

**51. 테라오카 아유미**

박사 과정  
프린스턴 대학교

**52. 우치무라 다이치**

어소시어트  
크롤

퍼시픽 포럼 직원

**53. Jesslyn Cheong**

수석 프로그램 매니저  
퍼시픽 포럼

**54. Keoni Williams**

영리더 프로그램 디렉터  
퍼시픽 포럼



## 첨부 C

한미일 3자 전략적 대화  
로얄 라하이아 리조트, 마우이,  
2018년 8월 6-8일

### 1 단계: 행복한 날들

10월 중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유엔 총회에서 만나 서한을 교환하는 등 "상호 존중" 및 "진정한 우정의 잠재력"의 성격을 띤 정도의 우호관계를 유지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대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곧 초청에 응해 방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 협상이 시작되고 실무 그룹이 형성되었다.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미사일 시험장을 해체했다. 한 미 공동 군사 훈련은 트럼프가 싱가포르 정상 회담 후 중단을 발표한 이래 실시되지 않았다. 차기 북미정상 회담의 성명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은 핵시설 및 핵무기를 신고한다. 이는 핵시설로 의심되어 모든 시설뿐만 아니라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2개 시설을 포함한다. 또한 핵탄두 45개, 플루토늄 30kg 및 고농축 우라늄 400kg을 담고 있는 핵무기 목록을 제출한다.
- 북한은 한미일 3국을 제외한 IAEA 등 제3자에 의한 핵시찰을 허용할 의사가 있다.
- 북한은 핵무기 및 미사일 실험을 계속 동결한다.
- 북한의 선의에 대한 표시로 화학무기 및 핵분열물질 잔여물을 제3국으로 반출한다. 북한은 핵사찰에 대한 IAEA의 승인을 얻을 경우, 북한이 핵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하고 따라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권리도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 미국, 한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시 북한은 전략 무기 포기를 논의할 의향이 있다.
- 미국은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고 북한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며 재래식 또는 핵무기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한국 전쟁에서 실종된 미군 병사들의 유해 발굴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8 월 상순께 50 구 이상의 유해가 미국으로 반환되었으며, 발굴작업단은 북한에 입국해 발굴 작업을 재개했다. 몇 주 안에 두 번째 유해 반환이 이루어 질 예정이다.

한편, 남북 관계는 진전하고 있다. 양측은 공식적으로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기위한 평화 조약 초안을 교환했으며, 이견을 좁히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북한은 DMZ 에 배치되어 있던 중화기와 병력을 철수시켰고, 남한은 대북 선전 방송을 중단했다. 비무장 지대 내 감시초소 (GP)와 장비도 제거되었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재개되었다. 9 월에 한 차례 상봉행사가 개최되고 12 월에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양국은 경제 협력을 위한 실무 그룹을 구성했다.

일본과 북한의 관계에는 진전이 없다. 양국간 실무급 회담은 있었지만 북한이 남북자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이며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관계의 정상화라고 주장하는 한편, 과거 한반도의 식민화에 대한 사과 및 100 억 달러에 달하는 금전적 보상 요구하고 있다.

1. 귀 정부는 북한의 핵 신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합니까?
2. CVID 혹은 기타 유사 용어들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비핵화 노력을 이끌어가야 할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 과정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선호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세 동맹국들이 CVID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3. 귀 정부는북 한과 전략 무기를 두고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에 양보할 수 있는 3 가지 안은 무엇입니까?
4. 귀 국의 역량과 외교적 제약을 감안해 핵탄두 제거, 핵 물질 제거, 모든 WMD 제거, 핵 생산 시설 해체, 미사일 생산 시설 해체, 검증 프로토콜 수립, 북한의 밀수 네트워크 파악 중 우선 순위를 정하십시오.
5. 3 국이 역지력 유지를 위해 공동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 다섯 가지를 열거하십시오. 역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3 국은 어떤 노력을 해야합니까?

## 2 단계: 화염과 분노의 귀환

2018 년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연 이후 2019 년 1 월, 남북미중간 평화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산가족 상봉이 여러 차례 개최되었고, 이를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내 기반 시설 건설에 관한 남북 대화가 진전되고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으며 북한이 위성을 개발하고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핵협상은 북한의 핵 신고가 불완전하다는 의구심으로 인해 중단됐다.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미신고한 핵 저장시설 및 실험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으며, 과학적 수사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보유량을 3 분의 1 까지 줄여 신고했음을 시사했다. 검증방법에 대한 협상도 북한이 상호 검증을 주장하면서 답보상태에 빠졌다. 또한 북한은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21 세기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위성 발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김정은이 자신을 속였다고 하며, 북한은 강제로라도 비핵화를 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또한 경제제재 재개를 촉구했다. 그는 한국에게 북한과의 모든 협력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만약 한국이 이 사안에서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미국의 군사지원이 필요 없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다!"라는 글을 남겼다.

일본과 북한 간 고위급 외교적 접촉이 없었다. 북한은 자신을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계속 지적하고있는 일본의 국방 문서들에서 지목하며, 북한에 대한 일본의 적개심을 감안할 때 양국 외교관계 증진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순찰 중 북한 해역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일본 해상 자위대 정보국의 초계함이 북한 선박과 2 대와 전투기 2 대에 의해 공격을 받았다. 일차적인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이로 인해 일본 초계함이 경미하게 손상되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북한에서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미군의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미 전문가들과 3 일째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보통 매일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고 한다.

일본해/동해에서 거대한 폭발이 있었고, 얼마 후 북한이 자신들의 역량을 과시하고 핵 및 평화 협상의 붕괴될 경우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지 일깨워주기 위해 핵탄두를 폭발시켰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KCNA)은 성명을 통해 동 사건이 "적대적인 일제와 미제의 대항해 우리 조국의 영광스러운 군이 영원히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일깨우는 계기이자, 북한의 힘은 결코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증한 사례다. 북한이 기대 이상의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만큼, 이제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평화에 대한 그들의 의지를 보여주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1. 다른 2개 국가가 취해야 할 행동 다섯 가지를 나열하십시오.
2. 다른 2개 국가가 취하지 않기를 바라는 행동 다섯 가지를 나열하십시오.
3. 2 단계 시나리오에서 귀 정부는 북한에게 어떤 메시지는 보낼 것입니까?
4. 현 무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귀 정부가 취할 다섯 가지 군사 단계는 무엇입니까?
5. 귀 정부는 북한 핵폭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